

완도군, 최남단 도서까지도 드론 배송 상용화 성공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 가져 1.5kg 물품 신고 완도 화흥포항~소안도 총 50km 왕복

완도군은 지난 9일 화흥포항에서 신우철 군수와 관계 공무원,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체공 수직 이착륙(VTOL) 드론 비행 실증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두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모형과 중량, 거리, 비행시간이 업그레이드됐다. 이날 비행체에 1.5kg의 물품을 신고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총 50km의 거리

를 왕복하는 비행 실증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장거리 드론 배송 실증으로 드론 활용 영역 확대와 드론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완도군 가장 멀리 위치한 섬인 청산 여서도의 한 주민은 “드론을 통해 택배 배송뿐만이 아니라 조만간 완도읍에서 치킨이나 자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드론 배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배송 거리와 적재 중량 등을 대폭 늘려 드론의 성능을 개선하여 도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2024년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보조사업 신청·접수

진도군이 오는 12월 1일까지 2024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보조사업 신청·접수한다. 대상 사업은 ▲식량작물 ▲원예특작 ▲친환경농업 ▲농산물가공 등 총 4개 분야에 각종 농기자재,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37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중복·편중 지원 여부와 사업성 검토 등 사업별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각 소관별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과 우선순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1월 사업별 보조금 고부결정을 통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인력부족에 따른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준비에 앞서, 사업 추진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원 군수가 지난 9일,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월1만원 파격 임대...인구 유입책 ‘눈길’

강진군은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연말부터 월 1만 원에 임대한다고 9일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은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장기로 5년 임대 시 5000만 원, 7년 임대 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강진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단기의 경우 6년 계약으로 연중 군에서 10개월, 집 소유주가 2개월 사용하는 방식이다. 장·단기간 강진군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제공한다. 단기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임대할 예정이다.

군은 11월 기준으로 임대할 빈집 42가구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4가구가 준공됐으며, 12가구가 공사 중이고, 17가구가 실제 설계 중이다 밝혔다. 총 42가구 중 일반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빈집은 1차 12가구, 2차 13가구로 총 25가구이다.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7가구로, 기존에 준공된 집은 농산어촌 유학에 먼저 제공 예정이다. 빈집 입주 대상은 강진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전입(예정)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원목표고 재배 자동화 시대를 열었다”

‘원목표고종균 자동접종장치’ 시연회...김성 군수 “생산성과 경쟁력 높아질 것”

장흥군은 8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배 시험장에서 원목표고종균 자동 접종장치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연구진이 주관한 시연회에는 장흥군과 군의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청,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등 표고 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발된 자동접종장치를 시운전 해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보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목표고종균 자동접종장치는 표고재배 인구 감소,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표고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장치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구슬형 목종균과 마감재를 동시에 개발·적용한 것으로 원목 이동부터 접종 후 마감까지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장비다. 국내 최초로 제작된 원목표고종균 자동접종장치는 2019년 군비 2억원을 들여 설계 및 기본 틀을 구성했다. 이를 심화해 국내 원목표고 생산 농가의 환

경에 맞는 장비를 개발하고자 산림청 연구과제를 통해 8억 25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실험을 기울여 장목형 장비와 단목형 장비 총 2대를 선보이게 됐다. 이번 장치 도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비를 줄여 표고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개발된 자동화 장비보다 국내 생산 환경을 고려해 국내 최초로 제작되어 활용가치와 의미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자동접종장치 도입으로 표고버섯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고버섯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 생산을 6차산업화해 농가소득 향상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해남군,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드립니다!

11월말까지 과오납금 반환 적극 조치

해남군은 11월 말까지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은 5,466건 1억8,4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이종납부, 국제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액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환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 모르는 등 관심 저조로 인하여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은 주민전산망을 이용 등을 통한 정확한 주소지를 파악하고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체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화·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건은 신속히 환급처리하고 11월 말까지 해당계좌를 파악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환부 과오납금은 환부 및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동안 비록 소액이라 할 지라도 빠짐없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 미환부되는 과오납금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